

모내기 새 기술 '벼 무는점파' 뜯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농촌 노동력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모내기 방식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6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나주 11㏊·답양 10㏊·영암 12㏊에 '벼 무는점파(點播)'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시·군 자체 사업으로 장흥 24㏊(4개소)·강진 10㏊(1개소)·해남 30㏊(2개소)에도 설치됐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무는점파' 기술은 모판에서 벼씨를 키우는 단계를 생략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승용이양기마다 과종기를 부착해 써레질 후 물이 없는 상태의 논에 3cm 깊이로 골을 파면서 1~2mm 가량 짜르는 벼씨를 7~10㏊씩 모아서 일정 간

못자리 생략...볍씨 싹 틔워 키운 모 바로 파종

기계 모내기보다 노동력 18%·생산비 8% 절감

격으로 바로 파종한다. 1회 작업시 8㏊를 동시에 파종돼 10분이면 10㏊(300평) 논에 파종할 수 있다.

그동안 기존 손으로 뿌리는 벼 씨앗 방식은 불균일하게 과종되는데다 이삭이 빠는 출수(出穗) 역시 일정하지 않고 수량감소와 비비비에 쓰러지는 도복(倒伏) 우려가 높았다.

무는점파 재배는 일정한 간격으로 벼씨를 뿌리므로 일정과 안정적으로 확보돼 초기생육이 우수하고, 무는상태에서 과종해 잡초성 벼발생을 억제

할 수 있다.

또한 적정한 과종깊이의 골에 벼씨가 점파됨으로써 뿌리활착이 좋으며

벼 씨앗을 줄이는 등 기존 씨앗재배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관행 모내기 방식은 ha당 163시간의 노동시간이 투여되는 반면 무는점파기술은 133시간에 불과해 노동력이 18.4%·생산비가 8.2% 절감되는 점이다. "앞으로 시범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 육성하고, 인근 지역으로 확대 보급해 생산비를 줄이면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식부면적의 10%인 1만8000㏊면적에 확대 추진할 경우 100억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볍씨싹을 틔워 키운 모를 모내기 하는 방식은 조선 후기들에 본격 보급된 것으로 못자리 단계를 생략한 이번 새기술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을 배 전남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과장은 "무는점파 재배기술은 쌀 수입개방 및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쌀 생산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시범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 육성하고, 인근 지역으로 확대 보급해 생산비를 줄이면서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강진군 군동면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기술 실증시범포 논에서 손 모내기가 한창이다. 실증시범포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품종을 선보이고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 제공)

추억의 손모내기



유기농 축제 '62데이' 한마당 대표적인 유기 농산물 생산업체인 장성 학사농장 주최로 지난 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유기농타운에서 열린 '62데이 한마당'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유기농 채소와 육류 등을 시식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자연속 愛' 상표분쟁 화순군 승소



화순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자연속 愛'의 상표등록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화순군은 지난 2008년 2월 '자연속 愛'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미 등록된 자연에 상표와 유사해 등록받을 수 없다고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등록적격 판결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회복은 물론 화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연속 愛' 박스에 담긴 화순 농특산물을 화순군 농산물직거래 장터 '파마리야'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 "자연속

愛'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상표허가·상표사용 책임·사후 관리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